

광주에 에너지인공지능연구소 들어선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프리몬트 메리어트 호텔에서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회사인 인코어드 최종 대표이사 와 에너지인공지능연구소 설립과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에 에너지인공지능연구소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이 전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광주시,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회사와 업무제휴

이용섭 시장 “인코어드,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적 파트너”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회사인 (인코어드)와 에너지인공지능연구소 설립과 공동 기술개발에 대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인코어드는 미국의 큐에스피(QSP, Quantum Strategic Partner)와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기술자금 투자를 받아 설립한 회사다.

1초 단위로 전기 사용량을 검출해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실시간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을 알려주는 사물인터넷(IoT) 스마트미터(스마트 전

력 계량기)인 ‘에너지톡’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인코어드는 현재 실리콘밸리와 일본에 연구법인을 운영 중으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에 에너지 인공지능연구소와 함께 독립법인을 추가 설립해 에너지 분야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광주시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인코어드가 보유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그리드 매니지먼트와 사물인터넷 센서 솔루션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 회사 최종 대표이사는 “실리콘밸리 경험을 지혜 삼아 광주에서도 스타트업 중심의 일자리와 기술의 생태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인코어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혁신적 경영 마인드와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까지 모두 갖춘 최적의 상생 파트너”라며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문화콘텐츠와 함께 에너지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영광군, 직접 나서
 천일염 4천톤 수매

가격 · 수급안정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천일염 수매에 직접 나선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이 4000톤을 수매하면서 가격안정과 수급안정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영광군은 저염식 식탁 선호, 정부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 등에 의한 식습관 변화로 천일염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재고량 증가, 판매가격 하락 등 천일염 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자 7월 말부터 직접 천일염 수매에 나섰다.

10일까지 2개월여 동안 4000톤을 수매한 결과 7월 말 1포대(20kg기준)에 2500원으로 추락했던 천일염 가격은 8월 말 3400원, 9월 초 3700원, 10월 초 4500원으로 가격회복세를 가져왔다.

영광군은 천일염 수매를 시행하기 위해 천일염 가격동향 분석, 물량배정, 대행기관 운영 방법, 수매기간 등을 분부터 면밀히 검토해 왔다.

또한 수매제 대행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대행기관으로 수협을 선정하고 수매기간 중 수협과 천일염생산자협의회 양측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천일염 수매로 가격과 수급이 안정화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천일염 생산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영광군은 천일염 수매제가 가격 안정화와 생산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검증된 만큼 내년에도 천일염 수매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향후 수출시장 개척, 천일염 홍보정책 등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천일염 산업을 보호하고 세계시장 속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군, 무안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마중물 사업비 167억원(국비 100억원) 확보

무안군은 지난 8일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에 선정되어 마중물 사업비 167억원(국비 10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에 선정된 무안읍 성남리 일원은 “꿈틀꿈틀”은 무안군의 특산물인 낙지가 움직이는 형상으로 쓰러진 소도 낙지를 먹고 별떡 일어나듯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무안읍을 비롯한 무안군 전체가 더욱 활기 넘치는 도시가 되기를 염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안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사업면적 135,501㎡에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도시활력 회복,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도시경쟁력 회복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각각의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추진하게 된다.

세부사업으로 생활환경개선에는 집수리 지원, 보행로 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이 있으며, 골목경제 활성화에는 원기회복 활력사업, 무안상상창작소 조성이 있다. 지역공동체 회복에는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있으며, 도시경쟁력 회복에는 LH행복주택사업과 더불어 부처협업 및 지자체사업 등이 포함 되어 있다.

무안군은 무안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누구나 가보고 싶고, 누구나 살고 싶은 전남 서남권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무안시 승격 및 주요 관광사업의 활성화 등에도 중요한 발판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만들어낸 성

과이자 결실이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 및 활성화에 기

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장성 황룡강노란꽃잔치, 방문객 인산인해

한글날인 지난 9일,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열리고 있는 황룡강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10억 송이의 가을꽃이 피어난 꽃길과 앵무새 특별체험관, 가든팸페어 등의 체험 코너에 관람객이 가득했다.

한글날인 지난 9일,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열리고 있는 황룡강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10억 송이의 가을꽃

이 피어난 꽃길과 앵무새 특별체험관, 가든팸페어 등의 체험 코너에 관람객이 가득했다.

2019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2019. 10. 25(금) - 27(일) 3일간

완도해변공원 / 완도타워 / 완도수목원 / 청산도 일원

주최·주관 청정완도가을빛여행추진위원회